

한국, 타격 대폭발 2연승 ... 미·일 승자와 준결승전

이스라엘에 11-1, 7회 콜드승
준결승 이기면 금메달 결정전
지면 패자부활전서 결승 진출권
살아난 타격감 ... 2연패 청신호

타격감 살린 한국야구대표팀이 4일 결승행 티켓을 노린다.

한국은 2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의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녹아웃 스테이지 2라운드 경기에서 이스라엘을 11-1, 7회 콜드승으로 제압했다.

전날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1-3으로 뒤진 9회말 극적인 뒤집기쇼를 펼치며 환승을 들었던 한국은 다시 만난 이스라엘에 콜드승을 거두면서 재정비 시간을 얻었다.

한국대표팀은 4일 오후 7시 미국-일본전 승자와 결승직행을 다투게 된다.

'갑'을 잡은 방망이가 모처럼 불을 뿜었다.

1회말 선두타자 박해민이 중전안타로 공격을 열었고, 전날부터 2번으로 자리를 옮긴 강백호가 연속 안타로 무사1·3루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정후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한국이 선취점을 뽐냈다.

선발 김민우가 1회에 이어 2회도 삼자범퇴로 막은 뒤 2회말 다시 한국이 점수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무사 1루에서 오지환이 중앙 담장을 넘기면서 한 번에 2점을 보냈다.

5회가 승부의 분수령이 됐다.

5회초 한국이 먼저 위기를 맞았다.

11타자를 연속으로 범타 처리하면서 호투를 하던 김민우가 1사에서 볼넷을 내주자 김경문 감독이 투수 교체에 나섰다.

최원준이 등판했고, 경기장에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제구 난조를 겪은 최원준이 몸에 맞는 볼과 볼넷으로 2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그리고 밀어내기 볼넷까지 나오면서 1-3이 됐다.

결국 조상우가 이번 대회 세 번째 등판에 나섰다. 조상우는 라인런 라반웨이의 타구가 힘없이 높게 뜨자 직접 잡아 추가 실점 없이 5회를 마무리했



2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녹아웃스테이지 2라운드 한국과 이스라엘의 경기. 7회말 11대1로 콜드게임으로 경기를 이긴 한국 김현수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위기를 넘긴 뒤 5회말 한국의 화력이 폭발했다.

오재일의 안타를 시작으로 오지환의 몸에 맞는 볼, 허경민의 내야안타가 이어지면서 무사 만루가 됐다. 황재균의 땅볼 때 상대 1루수가 홈승부를 선택했지만, 바운드 된 공을 포수가 잡지 못했다.

행운의 점수를 보낸 한국은 박해민의 좌측 2루타와 강백호의 적시타까지 더해 순식간에 8-1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정후의 병살타성 타구 때 상대의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한국이 다시 분위기를 살렸다.

2사 2루에서 타석에 선 김현수가 전날 끝내기 안타에 이어 이번에는 투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사실

상 경기를 끝냈다.

10-1까지 격차를 벌린 한국은 7회말 2사에서 나온 김현수의 2루타와 김혜성의 적시타로 '10점 차'를 만들어 콜드게임으로 경기를 일찍 마무리했다.

베이징올림픽 챔피언 한국은 드디어 살아난 타격감을 앞세워 올림픽 2연패 도전에 속도를 내게 됐

다.

7일 준결승에서 이기면 바로 금메달 결정전에 나서게 된다. 지더라도 우승 가능성은 있다. 준결승전 패배 시 패자부활전을 거쳐 올라온 팀과 5일 오후 7시에 결승 진출권을 놓고 격돌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멋진 4위, 이상혁 “올림픽은 즐기는 것”



도쿄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이상혁이 1일 도쿄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선에서 한국 신기록인 2.35m 바에 성공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높이뛰기 2m35 넘어 한국신기록

한국 스포츠가 수영에 이어 육상에서 높은 세계의 벽을 넘었다.

남자 높이뛰기의 이상혁(25·국군체육부대)이 한국 신기록을 날아오르며 올림픽 4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작성했다.

이상혁은 지난 1일 도쿄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넘어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앞선 한국신기록은 1997년 전국중별선수권대회에서 이진택이 만든 2m34다. 이상혁은 1차 시기에서 2m35를 넘으면서 한국 높이뛰기의 새 역사가 됐다.

2m31의 개인기록을 가지고 있던 이상혁은 이날 자신의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웠다.

앞서 이상혁은 지난 30일 진행된 높이뛰기 예선에서 2m28을 넘으면서 결선 진출을 확정했다. 1996년 애틀랜타 높이뛰기 이진택 이후 25년 만의 쾌거였다.

당시 이진택은 2m28로 예선을 넘은 뒤 결선에서는 2m29를 뛰며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25년 뒤 이상혁이 다시 결승 무대에 올랐다.

2m19로 가볍게 몸을 풀 이상혁은 2m24, 2m27에 이어 2m30까지 1차 시기에 넘었다.

이상혁은 1차 시기에서 2m33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도전 끝에 자신의 최고기록을 넘었다.

그리고 2m 35에 바를 놓고 다시 이상혁이 도약에 나섰다. 사람들의 박수를 이끈 뒤 시동을 건 이상혁은 한 번에 2m35를 넘으면서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상혁은 2m37에 도전했지만 1차 시기에 실패했다.

이어 선수 3명이 2m37에 성공하자, 4위를 확정된 이상혁은 2m39로 바를 높여 메달 도전에 나섰다.

2차 시기에서 바를 건드린 이상혁은 3차 시기에서도 아쉽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잠시 아쉬운 미소를 지은 이상혁은 자세를 바로잡은 뒤 경례 자세를 취하며 기적 같은 도쿄 비행을 마감했다.

한국 육상 트랙·필드는 이상혁의 활약으로 '9위의 벽'을 넘었다.

이상혁에 앞서 올림픽 결선에 올랐던 이진택과 함께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남자 멀리뛰기 김종일, 1988년 서울올림픽 여자 높이뛰기 김희선은 모두 8위를 기록했다.

볼모지 같은 수영에 이어 육상에서도 겁없는 신예 선수가 등장하면서, 한국은 벌써 2024년 파리대회를 기다리게 됐다.

18세의 황선우(서울체고)가 자유형 100·200m에서 신기록 행진과 결선 5위를 찍으면서 한국 수영의 미래를 밝혔고, '일병' 이상혁도 꿈의 무대인 육상에서 모두가 놀랄만한 기록을 작성하며 새 역사를 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펠프스 없는 수영 드레셀 '5관왕' 볼트 없는 육상 100m 제이컵스 금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수영과 육상에 전 세계 스포츠팬의 눈길이 쏠렸다.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와 '인간 탄환'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은퇴한 뒤 처음 치러지는 올림픽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적수가 없던 세계 최강자였다.

펠프스는 14세였던 2000년 시드니 대회를 시작으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 총 5번의 올림픽을 치렀다.

2004년 아테네대회에서 무려 8개의 메달(금·6·동)을 싹쓸이한 그는 2008년 베이징에서는 8개의 메달을 모두 금메달로 장식했다. 펠프스는 2012년 런던대회와 2016년 리우대회에서도 각각 4관왕과 5관왕에 오르는 등 올림픽에서 무려 28개의 메달(금23개·은3개·동2개)을 수확했다.

우사인 볼트도 설명이 필요 없는 '단거리 황제'였다. 2004 아테네 올림픽 200m에서 처음 모습을 보인 볼트는 이후 세 번의 올림픽에서 무려 9번이나 1등을 달렸다. 볼트는 마지막 올림픽이었던 2016 리우 대회를 앞두고 '올림픽 육상 3회 연속 3관왕'을 약속했다.

수영에서는 예상대로 케일럽 드레셀(25·미국)이 대관식을 끝냈다.

펠프스의 은퇴 이후 치러졌던 2017년 헝가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7관왕에 올랐던 드레셀은 2019년에는 광주를 찾아 6관왕에 등극하며 '새로운 황제'의 등장을 알렸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 정식 종목으로 치러진 혼성 혼계영 400m(5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종목에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고 '5관왕'에 올랐다.

리우에서 단체전인 계영 400m, 혼계영 400m에서 2개의 금메달을 땀던 드레셀은 이번에는 개인종목에서도 1위 행진을 하며 통산 금메달수를 7개로 늘렸다.

예측불허의 무대로 꼽혔던 남자 육상 100m에서는 이탈리아의 마르셀 제이컵스(27)가 이번을 일으키며 볼트 이후 첫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지난 1일 자벨 휴즈(영국)의 부정 출발로 두 번

째로 스타트 라인에 선 제이컵스는 9초80에 100m 질주를 끝냈다.

우사인 볼트가 가지고 있는 세계기록(9초58)과 올림픽기록(9.6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자신의 개인 기록을 0.15초나 앞당긴 '기적의 레이스'였다.

제이컵스는 생애 첫 올림픽 결선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과 이탈리아 기록 그리고 유럽 기록까지 새로 쓰면서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이탈리아 선수 사상 첫 올림픽 100m 금메달이기도 하다.

유럽 선수의 기록을 살펴봐도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 크리스티 린퍼드(영국) 이후 29년 만의 100m 우승이다.

한편 볼트의 은퇴로 역시 무주공산이 된 200m의 새로운 우승자는 4일 오후 9시 55분 가려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 (3일)	
오전 10시	남자 3m 스프링보드 준결승 우하람, 김영남
오전 11시	남자 그레코로만형 67kg급 류한수
오후 5시	남자 콤파인 조성민
오후 7시 50분	남자 109kg급 32강 진윤성
역도	